News & Views

日本技術에 손짓하는 美航空宇宙産業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국방비의 대폭 삭감이 계획되고 있는 지금, 미 국방 관계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의 DTIB(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국방 기술·산업 기반)이다. DTIB는 미국의 안전 보장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인적 자원, 기업, 기술, 병기의 개발·생산·유지 시설, 兵器·兵員의 지원 시설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의회 기술 평가국(OTA)의 보고서 「국방의 재편성」에서는 DTIB의 기능을 ① 平時에는 군사 시스템을 개발·생산·유지하고 ② 위기 혹은 戰時에는 군사력 증강의 요청에 대응하는 두가지에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방성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DTIB"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최근 미국방성의 보고서 「냉전 후 미군사 기술의 상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① 미군사 기술의 경쟁력 유지와 ② 긴급시의 생산 능력의 확보의 중요성을 재삼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에서의 경쟁력 저하에 이어 다음 희생자로서 항공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항공 산업에서는 산업 전체 고용수의 삭감과 매상에 있어 군용기와 민수기의 비율 역전 등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업계의 자체 노력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항공 우주 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이미 시작되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는 미국의 점유율이 87년 78%에서 91년 67%로 떨어지고 있다. 미항공 우주 산업의 쉐어를 침략하있는 것은 유럽의 에어버스와 일본의 항공기 산업이다.

이러한 미 국방 산업의 재편성에 직면하여 미정부 당국자, 의회, 업계 관계자 내부에서는 "국가 자립파"와 "국제 상호 의존파"가 서로 대립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 자립파"는 미국의 DTIB의 건전성과 미국방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Buy American'정책을 유지, 군사 조달을 미국 기업에 집중적으로 담당하게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고, 이에 대해 "국제 상호 의존파"는 국방 산업에 경쟁 조건을 도입함으로써 병기 가격의 인하를 도모하고 해외 기업과의 협력에 의해 최량의 기술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국방비 삭감과 국제 경쟁력의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미국방 산업으로서는 해외 기술에의 접근을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미국방성의 보고서 「냉전 후 미군사 기술의 상태」에서는 ① 해외 기업에 의한 미국방 관련 기업 매수 ②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확대 ③ 해외 기업·정부와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의 '국방 기술의 세계화'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美日 양국이 맺은 "무기 기술 교류 특별 위원회"의 창설합의 조약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미국이 라이센스 공여 등의 방법으로 일본의 군사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미국은 일본 기술의 對美 이전을 통해 미국 DTIB가 약체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미국방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즉 미국의 DTIB 전략과 대일 군사 기술 협력과는 表裏一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이 글은 주간 다이아몬드 92년 5월 23일 자를 기초로 해서 쓰여졌음).*

황 혜 란 [1)]

주석1) 동향 분석 연구실 · 연구원